

펠로폰네소스 전쟁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아르키다모스 전쟁

30년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무력충돌은 시간문제라 여겨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개전의 직접적인 실마리는 케르키라 분쟁과 포티다이아를 둘러싼 코린토스와 아테네의 반목, 메가라나 아이기나에 대한 아테네의 조치였다. 신중한 스파르타도 코린토스나 메가라 같은 동맹국의 압력에 밀려 기원전 431년 아테네에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거부당하자 전쟁으로 돌입했다. 스파르타가 내건 개전 이유는 아테네 제국을 타도해 그리스를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

육군 전력이 우세한 스파르타는 아르키다모스 왕의 지휘로 아티카를 침공해 경작지를 황폐화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이에 대해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지시에 따라 주민들은 방비가 견고한 몇몇 장소를 제외하면 살고 있던 농촌 촌락을 버리고 성벽 안의 아테네 시내로 대피했다. 한편 함선을 적지로 침투시켜 적국의 경작지를 유린하는 작전을 시행했다. 모든 것은 페리클레스의 예상대로 진행되어 그는 전몰자 추도연설에서 아테네 민주정의 이념을 부르짖고 결단코 승리할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개전 이듬해 그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농촌을 떠나 만족스러운 거처도 없이 성벽 내에서 생활하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시민들 사이에 전염병이 창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테네는 상당한 인명 손실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기원전 429년에는 페리클레스마저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럼에도 전쟁은 계속됐다.



그림 1. 펠로폰네소스 전쟁 지도 / 출처 : 위키피디아

그 후 동맹에서 이탈하려던 국가들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약점인 메세니아 지방의 필로스에 거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스파르타는 평화를 제안해 보았지만, 아테네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클레온은 그 제안을 거부했다(기원전 425년). 또 이 무렵, 페리클레스의 계산으로는 충분했던 전시재정이 적자로

돌아서자 아테네는 공납금액을 재조정해 동맹국의 부담을 늘렸다. 기원전 424년 스파르타의 용장 브라시다스는 아테네에 점령된 메가라를 탈환하는 동시에 테살리아를 함락시키고 트라키아 방면에 있는 아테네 측의 거점을 제압했다. 클레온은 암피폴리스를 공격했지만, 참패하고 그 전투에서 클레온 자신과 브라시다스가 모두 전사했다(기원전 421년).

새로운 평화조약은 전쟁이 중단된 시점에 양측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스파르타 측에서 내걸었던 개전 이유 내지 전쟁 목적인 ‘그리스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테네의 승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유력한 동맹국 코린토스와 보이오티아 연방은 그 조약을 승인하지 않아서 전쟁의 불길은 도처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서로 무력행사를 중단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역시 수년 만에 다시 전면전에 돌입했다.

풍운아 알키비아데스

페리클레스의 후견 아래 자란 알키비아데스는 재기가 넘치고 언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숭배한 소크라테스까지 매력을 느낄 만큼 수려한 용모의 소유자였다. 그는 정계에 진출하자마자 서지중해 전역을 아테네의 판도로 아우른다는 자신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했다. 우선 펠로폰네소스로 가는 곡물공급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시칠리아 원정론을 주장하고, 그에 반대한 니키아스를 누르고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원정 준비가 한창일 때 기괴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테네 시내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던 헤르메스 상들의 얼굴 부분이 한밤중에 파손되었던 것이다. 이 불길한 신성모독 행위에 시민들은 크게 동요했고, 불안감이 아테네를 감싼 상태로 신속히 진상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성모독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엘레우시스 비밀종교를 훔쳐 내며 조롱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그 무렵 방탕하게 지내던 알키비아데스도 그에 가담했다는 제보도 입수되었다. 하지만 진상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예정된 원정의 날이 밝아 알키비아데스, 니키아스, 라마코스 3명의 장군은 대함대를 이끌고 시칠리아로 떠났다(기원전 415년). 그러나 곧 알키비아

데스에게는 본국 소환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묘책을 찾다가 결국 적국 스파르타로의 망명을 결정했다. 스파르타로 간 알키비아데스는 시급히 시칠리아를 원조하고 아티카의 요충지인 데켈레이아를 공략·점령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신은 이오니아 도시들을 아테네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한 작전에 직접 가담했다. 그러나 스파르타가 그를 위험인물로 간주해 자객을 보내자 이번에는 페르시아 측에 몸을 맡겼다. 그는 소아시아 연안 지역의 페르시아 총독 티사페르네스에게 신임을 얻어 자금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이를 배경 삼아 알키비아데스는 조국 아테네로 복귀해 민주정을 타도할 계락을 꾸몄다.

결국 페르시아가 이오니아 지역에서 아테네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스파르타와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아테네 내부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즉 3단 노선 함대를 유지하는 부담을 떠맡으면서 전쟁을 계속하는 데 염증을 느끼던 상류층의 지지를 받아 과두파가 정권을 탈취했던 것이다(기원전 411년). 과두파는 즉시 스파르타에 전쟁 중단을 제안했으나 아테네에 해상 패권을 포기하라는 조건이 제시되자 평화협상은 결렬되었다.

흑해 방면으로부터 들어오는 곡물 공급로의 요충인 에우보이아가 동맹에서 이탈하자 그것은 시칠리아 원정이 참패했을 때 이상으로 아테네에 충격을 주었다. 아



그림 2.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알키비아데스' (1776) 프랑스수아 앙드레 뱅상 그림, 파브르 박물관 소장 / 출처 : 위키피디아

테네인은 알키비아데스의 공작활동에 의존하면서도 민회에서 토의와 입법을 거듭해 마침내 민주정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거국일치 내각을 수립했다. 이미 사모스섬에 주둔하고 있던 아테네군을 움직여 헬레스폰토스에 출동해 전과를 거둔 알키비아데스도 아테네로 돌아왔다(기원전 407년). 그 후 부하 안티오코스가 노티온 해전에서 패하자 알키비아데스는 다시 조국을 등졌다. 후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결전이 벌어졌을 때 그는 아테네를 지원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기원전 404년 프리기아 땅에서 암살당했다.

아테네의 무조건 항복

전쟁터가 소아시아 연안과 흑해 입구로 뒤바뀐 단계에서 전황은 해군력의 우열로 가려졌다. 그 때문에 페르시아의 자금 원조가 매우 긴요했다. 이미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원조를 얻기 위해 페르시아 전쟁 이래 교전 상태를 멈추고 몇 번의 절충을 거쳐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다(기원전 411년). 그때 수락한 조건에는 델로스 동맹에서 탈퇴하려는 이오니아 도시들에 대한 페르시아의 종주권을 인정한다는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 해방을 내건 스파르타가 이오니아 도시를 희생시켰음을 의미한다. 결국 아테네나 스파르타의 행적을 살펴보면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 수 있다.

스파르타의 명장 리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군자금을 얻자 서둘러 해군을 재편했다. 비록 기원전 406년 레스보스섬 부근의 아르기누사이에서는 아테네 함대에 참패를 맛보았지만, 그 이듬해 흑해 입구인 헬레스폰토스의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치른 결전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패전에서 곡물 공급로를 완전히 차단당한 아테네는 기아 상태에 빠져 기원전 404년 무조건 항복했다.

전후처리를 둘러싸고 펠로폰네소스 동맹국 중에는 아테네인의 노예화나 시내의 철저한 파괴 등 원벌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아테네의 공적을 언급하며 가혹한 응징에 반

대했다. 사실 스파르타는 내심 전후에 테베나 코린토스의 세력 확장을 두려워해 아테네가 독립국가의 지위를 지키면서 신흥 세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장성의 파괴, 함선의 몰수, 델로스 동맹의 해체, 해외 영토의 포기 등을 부과하는 선에서 관대하게 처리하고 아테네를 스파르타의 동맹국에 편입시켰다. 이로써 그리스 세계에서 지속되어 온 아테네의 헤게모니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헤게모니(hegemony)’는 아테네의 전성기에 델로스 동맹 회원국들이 아테네를 ‘헤게몬(Hegemon)’이라는 별칭으로 부른 데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패전국 아테네에는 스파르타의 주둔군을 배경으로 30인 참주라 불리는 과두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 정권은 실권을 장악하자 부유층의 재산몰수, 정적 살해 등 공포정치를 자행했다. 그러나 곧 30인 과두정부는 크라시불로스가 이끄는 민주파 망명세력과의 내전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스파르타의 중재 하에 양파 사이에 역사적 화해가 성립되고, 이미 아테네 정치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 민주정부는 되살아났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여파는 여러 면에서 나타났다. 군사적으로는 전쟁 중에 이미 전문화가 진행되고, 장군이 정치에서 멀어지는 기원전 4세기에 두드러지게 될 경향의 전조가 나타났다. 용병의 사용도 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현상이었다. 폴리스 사회를 떠받치던 시민의 토지 소유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전승국 스파르타에서 현저했다. 유례없는 완전한 전사 공동체로서 질박함과 강건함을 자랑하고, 사치스럽고 탐닉적인 문화의 유입을 거부하는 쇄국정책을 고집해 오던 스파르타에서도 전후에 화폐경제의 파도가 밀려오고 토지집중이 진행되어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어졌다. 패전국 아테네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토지집중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국을 상실한 상황에서 공공봉사에 주로 의존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정비에 불가피해졌다.

스파르타의 패권

대전 후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옛 동맹국들에 공급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사령관과 총독을 겸하는 하르모스테스라는 관리 휘하에 주둔군을 도시마다 파견하고, 그

도시들에는 주둔병력을 배경으로 과두파 시민들로 구성된 10인 정권을 수립했다. 리산드로스가 그 정책의 입안자로 아테네의 30인 참주정부가 전형적인 사례였다. 이미 이오니아 도시들을 페르시아에 팔아넘긴 바 있는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해방’이라는 구호를 외칠 자격도 또 그럴 의지도 없었다. 리산드로스의 강압책은 각지에서 저항에 부딪혀 스파르타는 보다 온건한 간섭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스파르타 세력은 멀리 북부 그리스나 시칠리아, 나아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꾀하는 이집트에까지 미쳤다. 한편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왕위 쟁탈전에서 키로스 왕자 쪽을 지원했다가 패퇴함으로써 동맹관계에 상처를 준 데다 뒤늦게 이오니아의 그리스 도시들의 귀속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어 갔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달리 국내에 메세니아라는 잠재적 위협 요인을 갖고 있어서 제국 지배에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처지였다. 게다가 스파르타의 패권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폴리스들도 적지 않은 터였기에 페르시아가 이 점을 간과할 리는 없었다.

코린토스 전쟁과 ‘왕의 평화’

알키비아데스가 이미 예측한 대로 페르시아의 군자금을 받아 쓴 스파르타의 일방적인 승리는 페르시아로서는 결코 환영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번에는 스파르타에 적대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아테네, 테베, 아르고스, 코린토스 등을 선동해 스파르타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이것이 바로 코린토스 전쟁(기원전 395~386)이다. 전쟁 막바지에 코린토스가 전쟁의 주무대였기 때문에 코린토스 전쟁이라고 명명한다. 코린토스 전쟁 중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아 급속히 국력을 회복해 코논은 페르시아 함대를 지휘하여 크니도스 곳에서 스파르타를 격파해 결국 스파르타로 하여금 해상 패권을 단념케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테네는 바로 장성을 재건하고 페이라이오스 항구도 요새화했으며 해군력도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반기를 든 키프로스와 이집트를 원조하자 페르시아는 이 전쟁의 타격 목표를



그림 3. '아테네 장벽의 파괴를 명령하는 리산드로스', 19세기 작가 미상의 석판화 / 출처 : 위키미디어

스파르타에서 아테네로 바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파르타의 사절 안탈키다스가 페르시아 측과의 교섭에서 성공하여 마침내 페르시아 왕의 중재 하에 그리스 도시들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스파르타는 그 평화유지의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소아시아와 키프로스는 페르시아 왕에게 귀속되고, 렘노스 등을 제외한 그 밖의 그리스 도시들에는 자치독립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특히 이 자치조항은 향후 그리스 세계의 국제정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다. 스파르타는 소아시아를 완전히 상실하는 대신 코린토스를 회복하고 또 자치조항을 방패 삼아 아테네나 테베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치조항은 양날의 검처럼 한편으로 메세니아에 대한 스파르타의 지배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